

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

약 5mm 두께의 둥근 레보
가 굴러듯 살살 돌돌 말아
볼 모양입니다. 나뭇잎 같
가운데 오목한 공간을 치
서 20 분간 구워 주세요.
후진지를 깔고 구워야 한다

요, 저희는 노른자를 쓸
관 없어요. 그렇지만 계란
아요! (음.. 이런 말 실례
하니까요?)

어 포크로 치즈소 가운데
큰자 한 알을 (기호에 따
후 오븐에 5분 더 굽습니다.
1-3 조각을 얹어 부드럽게
두리를 칠 하듯 버터를 발

다음과 같아요: 포크로
손으로 가장 자리행을 뜯
...!

늘어 나는 환상의 비주얼
드세요~ ^o^



77) 686 9025

카자흐국립대 도서관에서 유럽유학박람회개최



9월 26-27일, 알파라비 카자
흐국립대학교 도서관에서 유럽
의 우수한 여러 대학들을 만나볼
수 있는 유학박람회가 개최되었
다.

프랑스, 독일, 영국, 네덜란드
등의 서유럽과 폴란드, 체코, 불
가리아 등의 동유럽 지역에 있는
대학들과 그 대학들을 연결해 주
는 어학원 같은 단체들이 저마다

홍보들과 함께 열린 홍보경쟁을
벌였다. 일요일에 닿아서 그런지
이튿날은 비교적 한산했고 학생
들의 발길이 뜸했지만 점심이 가
까워질 무렵부터 점차 찾는 발길
들이 많아졌다.

박람회는 비단 대학생들만을
대상으로는 하는 것이 아닌 만큼
박람회장에는 군데군데 쉬를라
학생들의 모습도 적지 않게 눈에

띄었다. 6-8학년생들로 보이는
어린 학생들로 벌써부터 눈을 크
게 뜨고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
기울이고 있는 것이었다.

카즈구 대학생들은 모교에서
개최된 행사인 만큼 차분하게 여
러 대학의 부스들을 옮겨 다니며
유럽대학들에 대한 정보를 모으
며 미래를 점쳐보는 시간을 가졌
다. 박람회는 오후 4시까지 이어
졌다.

박람회가 예비 대학생들이나
재학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
효과는 적지 않다. 더 넓은 세상
으로 눈을 뜨게 만들어 주는 등
용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. 선
진국권 대학생들의 유학박람회
이니만큼 정기적으로 행사가 이
루어져 나간다면 향후 카자흐스
탄의 글로벌 인재 양성에도 큰
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.

카즈구 한국학과 이병조 학과장

아름다운 여정
아시아나와
함께 하세요!

아름다운 사람들, 아시아나항공이 '카자흐스탄-한국' 여행을
더욱 편안하게 모십니다.

※ 운항시간표

운항구간	운항요일	출발	도착	편명
일마에 → 서울(인천)	화, 금	23:10	07:50+1	02578
서울(인천) → 일마에	화, 금	18:10	21:55	02577
이스타나 → 서울(인천)	토	23:50	09:00+1	02580
서울(인천) → 이스타나	토	18:00	22:30	02579

※ 예약 및 문의: +7-727-556-3225 • ru.flyasia.com

ASA AIRWAYS | 아시아나항공